정읍 달하미술관, 지역 작가지원 1차 전시

5월 14일까지 장순 · 최명수 · 배기순 작가 작품 33점 만날 수 있어

정읍시(정읍시립미술관)가 운영하는 달하미술관이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역 작가지원 전시를 선보인다.

정읍시(정읍시립미술관)가 운영하는 달하미술관이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역 작가지원 전시를 선보인다.

정읍시(정읍시립미술관)가 운영하는 달하미술관이 3월 2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역 작가지원 전시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장순, 최명수, 배기순 작가의 작품 33점을 신태인, 연지, 수성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태인 미술관에서는 장순 작가의 '군무' 展이 진행된다. 장순 작가는 빛과 파도, 물결, 아름답게 춤추는 포말 속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는 찬란한 바다 풍경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지 미술관에서는 최명수 작가의 '나무로 만든 오토마타 장난감 작품전'을 만나볼 수 있다. 최명수 작가는 자연 소재인 나무를 사용해 아이들에게는 즐거움을 선사하고,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성동 미술관에서는 배기순 작가의 '자연이 주는 평안함'展이 마련된다. 배기순 작가는 각박한 세상 속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평안함'을 주제로 서정적인 자연의 여유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전시는 휴관일 없이 5월 14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 신태인은 햇빛 가림막을 설치해 오전 11시부터 21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연지 · 수성은 햇빛에 의한 작품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17시부터 22시까지 야간에만 감상할 수 있다.

달하미술관은 컨테이너에 유리를 설치해 제작한 간이 미술관이다.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이나 문화공간에 위치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고도 작품을 쉽게 감상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5월에는 2차 전시, 9월에는 3차 전시를 열고, 지역 작가들의 예술 활동 진흥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에 힘쓸 계획이다.

전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립미술관(063-539-64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교원 대상 태권도 직무연수 '호응'

태권도진흥재단, 전국 유 · 초 · 중등 교원 40명 선발 진행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은 전국 교원 대상, 최초로 태권도 직무연수를 실시해 주목받고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직무연수를 신청한 전국 유 · 초 · 중등 교원 중 40명을 선발,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2차에 걸쳐 연수일정을 마쳤으며 교원들의 열띤 호응을 얻었다.

재단은 지난 해 9월 '국기 태권도에 대한 이해증진'과 태권도를 통한 '신체움직임 발달 및 체육 지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관 하반기 특수분야 직무연수기관에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직무연수에서는 태권도 이해, 품새 · 겨루기 · 자기방어 · 태권체조 등의 교육을 진행해 향후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기 등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력했다.

재단 오응환 이사장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 신체교육에 태권도가 최고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직접 체험하고 공교육화해서 정규과목으로 태권도가 많이 보급되기를 바란다. 40명의 교원들이 각자 학교로 돌아가 이번 연수에서 익힌 태권도를 학생 대상 지도에 적극 활용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3월 초 예정된 2023학년도 상반기 특수분야 연수기관 모집에도 신청 예정으로, 최종선정 시에는 여름방학 기간인 7월말부터 8월초까지 2회 걸쳐 교원 대상 직무 연수를 이어 갈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대 자연사박물관 콘텐츠, 메타버스 통해 만난다

일부 전시실 옮겨 놓은 메타버스 플랫폼 오픈

전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관장 황성수)의 콘텐츠들을 메타버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자연사박물관은 일부 전시실을 옮겨 놓은 메타버스 플랫폼(https://zep.us/play/D6VZQO)을 만들어 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메타버스 자연사박물관은 건물외부, 로비, 강의실, OX 퀴즈룸, 기획전시실 Ⅰ, Ⅱ 등 7개의 맵으로 구성, 박물관을 투어하며 실제의 전시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올해 안에 상설전시실에 대한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초 ·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메타버스 공간인 ZEP을 통해 생태교육 프로그램인 '나는 분류학자!'도 운영키로 해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진행되는 '나는 분류학자!'는 강의실에서 생물다양성에 대해 알아보고, 온라인 전시실에 전시돼 있는 야생동물을 살펴보면서 분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의와 관련된 퀴즈를 풀며 동물의 특성과 분류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경험할 수 있는 'OX 퀴즈룸'도 마련됐다.

한편 이 교육 프로그램은 3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 신청을 받아 운영될 예정이다.

황성수 관장은 "이번 메타버스 플랫폼 오픈으로 오는 6월 5일까지 내진 보강공사로 휴관 중인 자연사박물관의 내부 관람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 플랫폼을 통해 어린이들이 게임처럼 생태교육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문화원, 전통문화 활성화 '맞손'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최근 4층 세미나실에서 김도영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나종우 전주문화원 원장, 김진돈 사무국장, 장선희 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문화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 교육 · 체험 · 전시 · 행사 콘텐츠 제공 및 활용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 및 편익 제공 △기타 다양한 교류와 상호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종우 원장은 "한국, 그리고 전주 속의 전통문화 발전과 활성화. 이는 좋은 사람, 좋은 기관이 만나야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며 "문화원과 전당이 전통과 문화발전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나갈지 함께 고민하자"고 전했다.

김도영 원장은 "1,300년 전주문화의 품격과 정체성, 격조 높은 문화시민의 길을 연 데는 그동안 전주문화원의 역할이 컸다"며 "문화원의 이런 노하우를 배우고 또 양 기관이 지역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힘을 합쳐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김선강 개인전' 개최

오는 6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김선강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및 동대학원 졸업 후 전북대학교 미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국립 군산대학교, 전북대학교 등에 출강하고 있으며, 한국미술협회, 여백회, 시공회, 동질성회 등에서 활동 중이다.

이에 따르면 작가는 '화필촉(華筆燭)'이라는 본인만의 회화적 언어를 통해 '생명 에너지'가 변화하는 순간들이 담긴 작품들을 발표해오고 있다. 작가는 생명 에너지를 '태어남', '새로워짐'을 의미하는 현상으로 바라보며 이를 'Birth'라고 명명한다. 'Birth'는 '생명을 빚는다', '생명을 품는다'라는 개념으로 생명의 잉태, 탄생, 변이, 소멸의 순회 과정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다. 그리고 작가는 모든 생명은 '어미'를 통해 세상과 조우(遭遇)하게 됨을 역설하는데, 이때 '어미'의 역할은 여성의 고유한 권한임을 뜻한다. 즉 작가의 작품은 한국 여성의 삶과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함께하며 인류를 이어가는 '어미'의 의미를 재고하고, '어미'의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명 에너지를 보존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빛음과 품음', 즉 에너지 단계의 생명을 빚고 품어서 온전한 생명체로 세상에 발현시키는 '어미'의 형상에 대한 탐구 과정을 작품으로 드러낸다. 더 나아가 작가는 건강한 생명 에너지가 충만한 생태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아, 무차별적인 개발을 멈추고 자연 생태를 보호하는 것을 책임이자 의무임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작가는 "처음 경험하는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벗어나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는 요즘, 이번 전시를 통해 건강한 생명 에너지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희망해 본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일품공예 목조각' 기획전 개최

전주공예품전시관이 지역 무형문화재의 작품을 전시하는 '일품공예-목조각' 기획전을 라온관(전시 2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일품'은 '아주 뛰어난 솜씨'와 '일평생 단 한 번 제작하는 공예품'이라는 의미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8호 민속 목조각장 김종연 장인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 작품은 20여 점으로 장인이 일생동안 제작한 단 한 점의 작품들로 구성됐다. 특히 눈여겨 볼 작품은 해, 구름, 산, 거북 등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자연물을 그린 그림인 '십장생도'를 목조각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